

데스크 시국



최재호
경제부장

350만 광주·전남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은행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

광주은행 인수전 예비입찰에 참여한 7곳 중 지구촌영농조합이 슌리스트(입찰 적격자)에서 제외돼 본입찰에서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 광주은행, 우리아사주조합,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전북은행), DGB금융(대구은행), BS금융지주(부산은행) 등 6곳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를 재구성 하면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와 광주은행 우리아사주조합 등 '지역자본'과 JB금융지주, DGB금융, BS금융지주 등 3개 '지방은행', '시중은행(신한은행)'의 3각 구도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광주은행 민영화에 대해 공격적 자금의 보다 많은 회수를 위해 '최고가 입찰' 원칙을 세웠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6곳이 경쟁을 벌이다 보면 낙찰가가 높아져 광

광주은행 민영화의 고민

주은행 인수대금은 1조~1조 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은행 인수전은 자금 동원력이 승부수가 된다는 얘기다.

자금 동원력이 승부수

광주상공인연합회와 광주은행 우리아사주조합 등으로 대별되는 지역자본은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가진 영향력과 상징성 등 지역정서를 배려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이라는 명분과 지역민의 정서라는 후원을 업고 있는데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평가 배점에 포함돼 유력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최고가 입찰'이라는 원칙 앞에 자금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B금융지주는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광주·전남과 전북이 모두 '원·원'하는 상승전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수가격만 놓고 보면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신한은행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수도권 권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펼치는 시중은행이 지방에까지 손을 뻗는다는 반감이 아킬레스 건이다. 같은 맥락으로 BS금융과 DGB금융은 경남은행 인수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데다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이 호남의 대표은행을 인수할 경우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6곳의 본 입찰자들은 각자의 장점을 어필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 인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은행의 민영화는 지역경제의 기초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동했다. 지역자본을 모아 지역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은행이 지역으로 환원된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지역발전의 역할 고려해야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의 순기능적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나 다른 지방은행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단순히 지역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의미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소의 심화, 지역은행으로서 경제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광주·전남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IMF 외환위기 후 지역은행이 사라진 충청·강원도에서는 지역은행을 다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청·강원 지역 경제 주체들은 항상 자금애로와 사업을 키우려 해도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당장의 가시적인 공격자금 최대 회수보다는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 주인이 누구냐'보다는 인수자의 지방은행에 대한 비전과 역할 제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한 지방은행은 그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덧줄'이 돼야 한다. 지방은행 인수전에 '지역감정'이나 '최고가 매각'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자가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지에 무게를 뒀어야 한다.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 lion@kwangju.co.kr

社說

J프로젝트 활성화가 바로 창조경제다

전남의 청사진을 바꾸겠다는 야심차게 시작된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이 출범 10년을 맞아 이제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나인 부동지구 개발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법인 섣카운티(주)는 최근 자본 잠식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해남군 산이면 부동·대지리 일대 1415만㎡에 워터파크,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부실한 검토와 예산 부족, 지역민들의 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법인 섣카운티(주)는 최근 자본 잠식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해남군 산이면 부동·대지리 일대 1415만㎡에 워터파크,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부실한 검토와 예산 부족, 지역민들의 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법인 섣카운티(주)는 최근 자본 잠식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해남군 산이면 부동·대지리 일대 1415만㎡에 워터파크, 마리나를

호남고속도로 울퉁불퉁, 도로공사 뿔하나

운전자들이 호남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겁이 난다고 한다. '도로의 지뢰'라는 포트 홀(Pot hole)로 고속도로가 울퉁불퉁 패여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수공사로 인해 사고도 잦기 때문이다.

윤우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현상은 지난 2008년 이후 1만620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1만7042건에 이어 전국 25개 고속도로 중 2번째로 많은 수치다.

호남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981건에 이어 2009년 1888건, 2010년 2756건, 2011년 4789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4200여건을 넘어서고, 올 8월 말까지 1574건이 발생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에서의 포트 홀로 인한 사고는 차량 운행속도가 빨라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데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1990년 이전에 개통된 도로의 경우 포트 홀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보수공사도 사고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8년 이후 8월 말까지 36건으로, 경부고속도로(45건) 다음으로 많다. 이들 사고의 상당수는 보수공사 탓도 크지만 졸음운전,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했다고 하니 안전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특성상 포트홀과 보수공사로 인해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울퉁불퉁 패인 노면을 서둘러 보강하고, 보수공사 역시 분선 차단에 따른 완충구간 연장 및 운전자 위험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한다면 전적으로 도로공사 책임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지금부터 7년 전, 2006년에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함께 5일간 광주전남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광주를 떠나시기 전 박원순 이사님은 필자에게 표지에 별 그림이 가득히 그려져 있는 일련의 한 자치단체 홍보물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고장은 자원이 열악한 시골 마을인데, 단장님이 '별이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덕에 별을

야호! 총장로와 희망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을 꽂아놓고, 지역에 별을 테마로 한 먹물거리, 별 캐릭터, 별을 주제로 한 놀이 공간, 별 전설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별을 보기 위해선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역이 살아났고, 지역특산품들은 별 브랜드를 가지고 팔려나갔어요. 그 고장이 다른 옛 고장보다 별이 특별히 더 아름다웠잖아요? 똑같은 별이죠, 바로, 창조와 상상력이예요. 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상상을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죠. 류선생은 광주에서 앞으로 이런 상상력으로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7년 동안 그 별 그림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었다.

며칠 전 5일간의 총장로제가 끝이 났다. 이번 총장로제는 광주만의 콘텐츠를 담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던 축제였다. 광주이야기를 담은 창조콘텐츠경연대회, 거리퍼레이드에서도 광주 이야기를 담았고, 추어의 행사장에서도 광주의 독특한 추억과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었다. 아프리카를 가면 아

프리카 원주민의 노래와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해 들어야겠는가?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래다. 광주 총장로제에도 마찬가지다. 비록 초기 반응은 부족할지라도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광주의 콘텐츠를 만들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야호 총장로"라는 김유성 가수의 노래가 축제 이전에 방송에 송출되고, 폐막식 분수대 앞 분무대에서 공연이 된 것이다. "달을 따라, 손나팔 불며, 달을 따라, 달을 따라. 총장로에 모이자. 다 같이 무두산 달따라~", 문화전당 위에 달이 떠 있고, 총장로 금남로에 수만의 시민들이 물려 있는 현장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 작년 8월에 여수엑스포 때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많은 도움을 줬서 그때부터 행복문화사업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던 노래가 총장로제 때 입박해 마침내 '총장로에 모여 달 따라 가자'는 노래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호남인들은 비 내리는 호남산과, 목포의 눈물을 야구장, 행사장에서 함께 불러왔었다. '부산은 '부산갈매기'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비 내리고 눈물만 흘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던 그 마음과 정성으로 '야호 총장로'를 만들었다. 어제 밤 두 팔을 어딘이집에서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다섯 살 둘째가 "아빠 달이 이빠요, 근데 달이 자꾸 저를 따라와요." "응, 달이 널 좋아해서 따라 오는 거야" 순간 저의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눈물로 젖은 눈으로 본 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이제 시민참여 방식 기금모금과 시민들의 출연을 통한 뮤직비디오 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 분수대 위 달로 만들어갈 상상의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킬링을 심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통합의학박람회

물요법과 수술을 통해 신체의 어느 한 특정 부분에 국한해서 이루어진다. 서양의학이 전래된 이후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받던 전인적유체 요소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물론 현대 의학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가 뭐래도 서양의학 덕분에 우리들의 건강은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령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이런 질환들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의학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의학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체의학을 연계한 것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

료 서비스이다. 단순한 양·한방의 결합이 아니라 각 의학의 유기적인 어우러짐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의학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NCCAM)를 만들어 통합의학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현대의학과 더불어 대표적인 보완대체요법인 동종요법과 향기요법, 침술 등을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합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뛰어나다. 전남도는 여느 지자체보다 먼저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통합의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06년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은 시작으로 한방산업진흥원 개

원, 2007년 통합의학 국제 심포지엄, 2010부터 3년 동안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척박한 환경에서 통합의학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 확보와 우리나라로 통합의학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통합의학박람회가 '몸과 마음의 치유, 통합의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장흥 천관산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그동안 통합의학의 정보교류는 물론 통합의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박람회는 국내외 218개의 전문 의료기관 및 협회 단체에서 참여해 양·한방, 대체요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 중의학과 일본 대체요법을 소개할 것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

기고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을 다룬 드라마를 보면 환자가 오면, 바로 아픈 부위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서 아픈 부위를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부위의 치료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종합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전인치유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 걸까? 현대 서양의학의 치료는 약

자영업까지 문어발 확장하는 대기업 해도 너무해

필자는 광주시내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셀러리맨이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면 당연히 상상이다. 서로 돕고 함께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르짖는 상생이 헛구호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그 이유는 요즘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야가 중소기업들이 해야 마땅한 분야까지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꼭 그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중소기업 분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업종 분야가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이다. 그리고 대기업들 중 일부는 자사 직원들이 쓰는 소모성 문방구류를 대주는 중소기업체까지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말로는 그룹 차원에서 산값에 공동 구매하겠다는 의도지만, 내부용 구매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입찰에까지 참여한다고 하니 중소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다.

대기업들이 자꾸 이리다 보면 중소기업들은 밀리고 밀려서 모두 다 꺼리는 더럽고 지지분하고 돈 안 되고 힘든 분야만 떠안게 된다. 이마저도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나 생산타산이 안 맞으면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손실은 모두 어디로 돌아올까. 대기업들이 뜨거운 불판 앞에 쪼그려 앉아 하루 꼬박 일해도 고작 몇만 원 벌까말까 한 떡볶이 아줌마나, 몇 달을 공들여야 된 조금 만지는 해변가 소금장사들의 일가가 뻗어야 옳은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無 等 鼓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 Carr)는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는 명제를 남겼다. 카는 또, '역사는 한 세대의 기록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보한다'고 주장했다.

위나 유명한 문장이지만 또 다른 한 편은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과거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적이기도 하다.

조선실록을 살펴보면 '역사의 엄정한 기록을 추구했던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온다.

태종 4년(1404) 2월 8일의 일이다. 태종이 노루를 사냥하다 타고 있던 말이 거꾸러지면서 그만 낙상했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본 태종은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사관은 낙상 사건은 물론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을 임금이 했다는 것

까지 실록에 기록했다.

태종의 아들인 세종은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자 내용을 살펴보고서 "전하께서 보신다면 후세 임금도 본받아(실록을) 고칠 것이며, 사관도 균왕이 불 것을 의심하여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의정 맹사성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왕은 실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역사에 기록되는 권력자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도 '엄정한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이 있어야 현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카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할 수 없는 길이 끊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에게도, 역사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사라진 기록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교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